

# 경찰 현장인권상담센터 시민들 '외면'

### 6개월간 상담 114건 하루 평균 1건도 안돼 센터 존재 자체 몰라 홍보 대책 등 세워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광주 광산경찰서에 문을 연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정작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피의자 등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 광산서를 포함 서울 영등포서·부산 동래서, 대구 성서서·대전 둔산서 등

전국 10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광주광산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가 개설됐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피의자 등이 경찰조사 과정 등에서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다.

현재 광산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조사관과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17명과 공개지원 일반위원 9명 총 26명이 근무하며 민원 인에 대한 상담과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광산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홍보부족으로 상담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개소 이후 6개월 동안 광산경찰서 내 센터의 이용 현황은 총 114건으로 1일 평균 1건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센터를 방문 하는 민원인들조차 위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당초 광산서 1층 민원실에서 상담했으나 민원실 공사 이유로 센터를 4층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해 야간 상담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받을 수 없다.

민원인 A씨는 "경찰서에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오하러 알려 달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B씨는 "서비스 내용을 둘째 차지고라도 직원들에게 센터 위치를 물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이 센터 존재 자체를 알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경찰서 일부 공간만 빌려줬을 뿐이다. 인권 업무는 센터가 담당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강남서나 종로서의 이용률은 동기간 250~270건으로 지방과 비교했을 때 이용건수가 많은 편이지만 지방은 미비한 건 사실이다"며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2~22	흑산도	16~21
담양	12~23	구례	14~23
화순	13~22	곡성	12~22
영광	14~22	완도	15~23
함평	14~23	강진	13~23
무안	14~21	장흥	13~23
영암	13~23	해남	13~23
진도	16~22	고흥	13~23
신안	16~23	보성	12~22

일출 06:32 일몰 18:08  
월출 15:30 월몰 01:03

목포	만조 09:50 23:02	여수	만조 05:41 18:36
	간조 03:56 15:44		간조 00:09 11:3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5·18 헬기사격 목격 추가 증언

### 천주교 신도 "호남동 성당서 총소리·불빛 번쩍"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천주교 신도의 새로운 법정 증언이 쏟아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7일 법정동 201호에서 사자명에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8)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천주교 신도 이광중씨(72)와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65), 항쟁 마지막 날까지 옛 전남도청을 사수한 김인환씨(60) 등 3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2시께 광주 호남동 성당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며 "성당 정문 쪽으로 가니 불모동 다리에서 공원을 향해 헬기가 떠있었고, 공원 하천서 총소리와 함께 불빛이 '번쩍'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 박씨와 김씨는 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인근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4~5시께 도청 앞에서 헬기가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다"며 "당시, 헬기는 전일빌딩과 비슷한 높이에 위치했고, 불빛과 함께 '드르르르' 총소리 후 공수부대가 도청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새벽 4시께 군인이 줄을 타고 내려오고, 헬기에선 총을 쏘았다"며 "어느 총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총을 맞고 쓰러졌고, 이후 우릴 향해 총을 겨누고 쏘았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속개되고, 헬기사격을 목격한 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광민 기자



아빠, 우리 고래 잡을까?

7일 오전 광주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아빠, 우리 고래 잡을까?' 라는 주제로 열린 원화전시에서 참빛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철사와 리본등을 이용해 고래를 만들어 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 7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 534억원 달해

### 장병완 의원 "금융사기 날로 고도화... 대책 시급"

광주·전남서 지난 7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로 500여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 사칭과 대출사기이며 평균 피해액은 1,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7년 동안 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1,826건이 발생해 3,168명이 검거됐고 피해액은 2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은 2,867건이 발생해 2,777명 검거되고 27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은 하루 평균 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으며 평균 피해액은 각 1,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6만 3,664건이 발생해 16만 465명이 검거됐고 피해액은 1조 7,390억원, 1일 피해액은 6억 8,000여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기관사칭 사기(경찰·검찰·금융원 등)가 3만 9,721건·7,073억원,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 3,943건·1조 31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 성희롱 문자 보낸 남학생 집단 폭행

성희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17)양 일행은 전날 저녁 9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서구 한 독서실 지하 등에서 B군(18)을 주먹과 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다.

B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양만 남아 있었고, 다른 일행은 도주한 상태였다. A양과 A양의 남자친구 등은 B군이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A양에게 성적적인 표현이 들어간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폭행 가담 인원과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 CCTV로 오인 복권 출력기 훔친 40대

복권출력기 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복권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 110만원과 담배 5보루, 복권 출력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평소 자주 들락거리던 복권방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 단말기는 CCTV 저장 장치인 줄 알고 뜯어, 영산강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도주로를 추적해 검거하고, 피해품 일부를 회수했다.

/이나라 기자

## 비대면 계좌로 사기 행각 30대 구속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다고 속여 모두 85명에게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비대면으로 쉽게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카카오톡 등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선불 휴대전화 11개를 개통해 사용하면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서울에서 A씨를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종찬 기자

#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